"우리문화 보는 눈 트여 즐거워요"

중앙박물관 '여성문화교실' 주부들에 큰 인기

◇여성문화교실에서는 봄 · 가을 한 차례씩 고찰과 옛 절터로 답사를 떠난다.

◆2002년 여성문화교실 일정

월	일	강 의 내 용	강 사
4	12	우리 문화유산을 감상하는 눈	정양모(전 국립중앙박물관장)
	19	고고학 이야기	이선복(서울대)
	26	특별전 특강- 몽골 문화의 이해	이평래(한국외국어대)
5	3	선사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	추연식(고려대)
	10	고분벽화에 나타난 고구려인의 생활	최무장(건국대)
	17	유물과 유적을 통해 본 백제의 문화	권오영(한신대)
	24	유적답사	장소 미정
	31	고분 출토 유물을 통해 본 신라의 문화	윤세영(고려대)
6	7	특별전 특강- 일본 미술문화의 이해와 감상	정우택(한국미술연구소)
	14	한국의 불화	홍윤식(서울예술국악고등학교장)
	21	한국 불교조각의 흐름	최성은(덕성여대)
	28	한국의 석탑 .	소재구(국립중앙박물관)
9	6	우리 역사 속에서 발견하는 여성의 삶과 지혜	이배용(이화여대)
	13	우리 옛 그림 속에 나타난 여성의 모습	이원복(미술부장)
	27	한국의 고인쇄문화	박상국(문화재연구소)
10	4	한국의 목공예	박영규(용인대)
	11	유적답사	장소 미정
	18	한국 고건축 양식의 이해	김동현(동국대)
	25	한국의 전통조경문화	정재훈(한국전통문화학교)
11	1	우리 도자기의 아름다움	윤용이(명지대)

불교미술·역사속 여성의 삶·지혜 배워
슬라이드 교육후 관련 전시실 돌며 복습

"엄마, 왜 부처님의 손모양은 다 달라요?"

절이나 박물관에서 아이의 이런 질문을 받고 당황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멋진 엄마가 되게 해 주는 곳이 국립중앙박물관의 '여성문화교실'이다. 이 강좌는 조금만 늦게 신청해도 접수가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따로 접수를 하지 않아도 언제든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이 95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여성문화교실'에서는 선사시대부터 고구려, 백제의 생활과 문화는 물론 사찰 건축이나 불교 조각 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 불교미술 강의, 우리 역사 속에서 발견하는 여성의 삶과 지혜 등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매주 교재와 슬라이드를 이용한 강의가 끝나면 그날 배운 것과 관련 있는 전시실을 돌아보며 '복습'한다.

또 박물관에서 열리는 특별전을 더욱 쉽고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도록 '특별전 특강'을 열고, 봄과 가을에는 고찰이나 옛 절터로 답사를 가기도 한다.

5기 수강생인 이선화(46) 씨는 "'고고학의 이해'란 강좌를 듣고 선사실을 관람했는데 전시된 유물과 설명이 쉽게 다가왔다"며 "강좌가 8개월이라는 긴 기간에 걸쳐 진행되지만 우리 문화를 보는 눈을 뜨는 즐거움 때문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니게 됐다"고 말한다.

강의가 끝났다고 공부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여성문화교실 수강생들 중 우리 문화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연구반'을 만들었다. 1기 회장인 김정자(58) 씨가 주축이 된 '연구반'은 현재 250여명의 회원이 있다. 이들은 매주 둘째 월요일 국립중앙박물관에 모여 미리 정해진 주제에 따라 공부를 하거나 강사를 초청해 강의를 듣는다. 김 씨는 "몇몇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공부를 더 해보자고 시작했던 모임이 벌써 7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강의와 답사를 통해 우리 문화를 알아가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여성문화교실을 진행하고 있는 반혜영(국립중앙박물관 섭외교육과) 씨는 "수강생 대부분이 수업에 대한 이해나 참여도가 무척 높은 편"이라며 "방학 기간인 7~8월에는 자녀들과 함께 박물관을 찾아와 자신이 배운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한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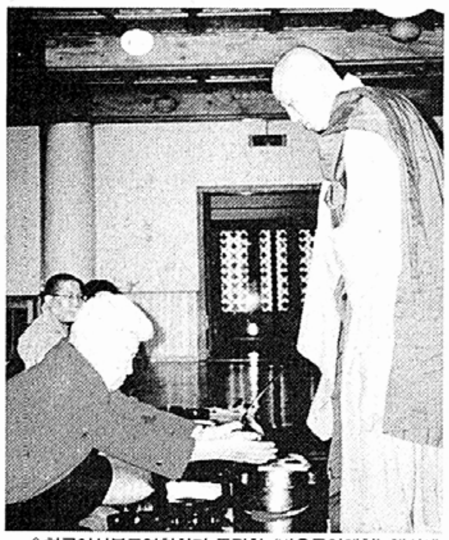
강좌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여성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지만 4~50대 주부들이 주를 이룬다. 처음 '주부문화교실'로 출발해 올해 8기를 맞는 이 강좌는 이제까지 각 기수별로 200명씩 약 1400명이 거쳐 갔다.

강의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30분 국립중앙박물관 사회교육관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02)398-5081

여성 담당=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음식쓰레기 '無'

여성불교련, 도선사서 '발우공양체험' 행사


◇한국여성불교연합회가 주관한 '발우공양체험' 행사에서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 회장이 발우공양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가 주관하고 생활환경운동 여성단체연합(공동상임대표 정광모)이 주최한 '발우공양 체험' 행사가 1일 서울 도선사에서 열렸다.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정광모 씨와 식생화개발연구회 안승충 씨, 녹색어머니회 윤경석 씨, 여성연구회 윤용수 씨 등 10여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발우 공양을 통해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체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처음 발우공양을 해 봤다는 정광모 회장은 "가정에서도 발우공양의 가르침을 실천한다면 환경을 생각하는 식사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이번 모임을 제안한 김묘주 회장은 "환경부가 벌이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발우 공양을 널리 알리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 생활환경운동 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모두 참가해 발우공양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생활환경 여성단체연합은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생활실천 수칙'을 만들어 각 가정에 전달해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해왔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생활환경 수칙■

1. 식단을 미리 계획하여 필요한 식품만 구입한다.
2. 냉장고를 정기적으로 정리하고 보관품목의 목록을 만든다.
3. 냉장고에 식품을 보관할 때 검은 봉투에 넣지 말고 투명 용기를 사용한다.
4. 구입한 식품은 즉시 손질해 조리 · 보관한다.
5. 염분섭취를 고려해 식단을 구성한다.
6. 계량 스푼 · 계량 저울 · 계량 컵 등 계량도구를 사용한다.
7. 음식은 가족의 기호와 식사량을 고려해 적당량만 만든다.
8. 음식은 먹을 만큼만 덜어서 먹는다.
9.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습관을 가진다.
10. 음식쓰레기는 이물질과 철저히 분리해 배출한다.

신행담

제7회 신행수기 당선작

종단협의회장상

포교사로서 가야할 나의 길 (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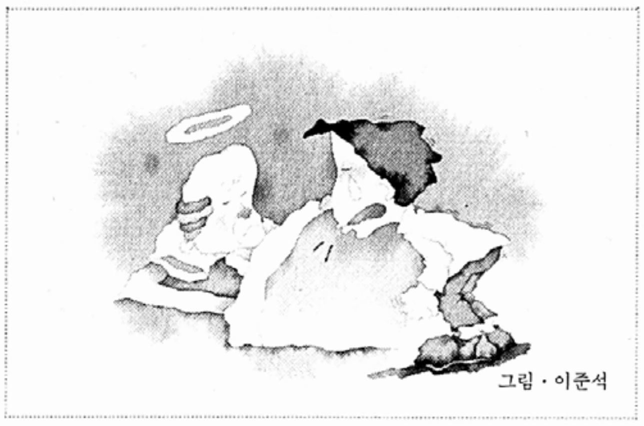


그림 · 이준석

폐결핵 앓으며 도봉사서 참선·묵언
결혼후 영남불교대와 인연… 새 인생

어린 시절 유달리 병약했던 나는 중학생이 되자 공부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다 급기야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하지만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아는 분의 소개로 칠곡 도봉사로 갔다.

그곳에서 대웅전 안의 불상을 보며 하루 종일 절을 하고, 예불을 드리자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거워졌다. 또 새들의 소리와 온갖 꽃들이 피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의 변화에 눈뜨고, 맑은 물을 마시면서 깨끗한 공기 속에 사는 내 자신이 자연의 일부분임을 느끼게 되었다. 자연히 잠도 잘 오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다. 몸에는 살이 일고 얼굴이 밝아져 이듬해 봄 집으로 돌아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친 후 늦게 대학을 다니게 되었다. 대학졸업을 앞둔 4학년 가을학기에 군대시절의 폐결핵이 재발했다. 나는 왜 이렇게 원하지도 않는 병을 가져야 하는지 원망하다보니 불면증이 재발했다. 정실질환을 보인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친하다는 친구도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 이 세상에 마음을 진정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음을 느끼고 고독 속에 스스로 깊은 사색에 몰입해 갔다. 병원에서 주는 약도 먹지 않고 몸을 돌보지 않아 각혈을 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내 마음의 고향 같은 도봉사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어머님께 결심을 말씀드린 다음 날 혼자 출가 아닌 출가를 했다. 그곳에서 나는 묵언과 참선을 하며 끊임없이 불법을 공부했다.

어느 날 어머님이 "집안에 큰일이 있으니 한번만이라도 집에 오라"고 사정해서 하산하게 되었다. 골목 어귀에 걸려있는 초상등불을 보자 나는 "아버님이 돌아가셨구나"하는 직감에 두 다리가 풀려 그대로 망연자실해져 버렸다. 그날이 바로 출상한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던 것이다.

큰어머님은 나의 호적상의 어머니이고 슬하에 어린 이복형제만 여섯 명이 있었으므로 나는 두 집안의 장남이었다. 그러므로 나의 친어머님은 장남인 나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청춘을 희생하며 나와 두 남동생과 여동생을 키워내셨다. 그런 어머니 때문에 나는 다시 학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학교에 나가니 이미 졸업시험도 지나가 버렸고 학우들은 저마다 졸업논문 마무리와 취업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어쨌든 졸업은 해야 할 것 같아서 학교생활에 다시 적응하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병원에도 다시 나가 처방도 받았다. 완치를 위해 6개월 정도 약을 복용했고 완쾌통보를 받은 뒤 아직 재발 없이 건강하다.

그럭저럭 해가 바뀌면서 졸업도 하고, 취직도 하고, 결혼까지 했다. 친어머님을 모시고 처와 두 딸의 부양을 책임지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가 잃어버린 자아를 찾기 위해 영남불교대학과 인연을 맺은 후부터 나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계속)

장만수(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모집공고

1) 모집부문

모집분야		인원	자 격
사회복지	사무국장	0명	사회복지경력 10년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
	복지과장	0명	경력3년이상,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생활지도원	00명	초보자 가능,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신도관리 및 종무행정요원		00명	불자로서 신심이 돈독하고 절에서 숙식가능한 남 · 여
봉사요원 및 농장인부		00명	절에서 휴양하면서 봉사할 분(연령, 학력, 제한없음) 정원사, 조경사, 농사에 유경험자 우대
공양주		00명	주방에서 일하실 분

2) 근 무 지 : 경북 영천시 자양면 충효리 660번지
숙식제공, 월급여 지급, 노후생활보장

3) 채용방법 : (1차)-서류심사 (2차)-면접
※합격시 개별연락

4) 필요서류 : 자필이력서(사진부착), 졸업증명서,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 봉사요원 및 농장인부는 주민등록증 사본만 제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충효자비원

대한불교 조계종 충효사

전화 : 054)338-5148, 016-503-5148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장애아동요양시설 상락원 원장 초빙

1998년 6월 1일 개원한 장애아동요양시설 상락원은 무연고자 또는 부모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보호 양육이 불가능한 장애아동을 입소시켜 생활 여건과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 영아/아동(0세~18세) 80여명이 재활교사 30여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격조건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위와 동등한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위 조건을 갖춘 조계종 승려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각 1부

접 수

1. 기 간 : 2002년 4월 8일 ~ 2002년 4월 17일
2. 접수방법 : 우편접수, E-mail 접수
3. 접 수 처 : (우) 136-075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0-1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법인사무국 전 화 02) 928-0750 E-mail : sgwon@sgwon.or.kr 홈페이지 : http://www.sgwon.or.kr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전형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참! 좋은 인연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3일 안에 깨닫는다

부처님 당시 '마하가섭'은 8일만에 지혜의 눈이 열려 아라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중국의 백림사 (하북성 조현) 와 보봉사 (강서성 정안현) 에서는 이미 찰나(돈오)에 깨치는 3시간의 수행법이 있어 왔습니다.

깨달음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수년 동안의 수행에도 얻기 힘든 깨침을 최초로 공개되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단 3일 안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성취와 결과는 매우 분명하며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립니다.

● 쉬고 싶지만 쉬지 못할 때
● 일상 찌든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지 못해 방황할 때
● 번민, 갈등, 괴로움과 집착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 부족함 없이 사는 지혜를 얻고자 할 때

체험하는 만큼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다.

■ 무념 무상과 삼매를 언제나 이룰 수 있는 능력
■ 자기 조상과 타인의 조상을 천도 확인할 수 있는 능력
■ 생사의 두려움에서 초월할 수 있는 능력
■ 시공을 초월한 존재의 근원으로 소원을 성취하고 운명을 바꾸는 능력
■ 고도의 정신집중 능력

영혼의 안식처 : 033) 435-3166, 435-6166 FAX 435-8166

참마음수련 心田 대광사

반야연립주택분양접수

▶ 분양 신청 대상자 : 비구니 승려에 한함

▶ 분양 내용

평 수	13.45평	15.6평	23.57평
세대수	12세대	4세대	2세대
분양가	3,830만원	4,450만원	6,720만원

▶ 공용시설 : 34.85평의 반야선원

▶ 위 치 : 경남 하동군 화개면 삼신리 95-1

화개장터 → 3km 반야연립 ← 1km 쌍계사

▶ 준공예정월 : 2002년 7월

▶ 연 락 처 : 055-883-2097
019-530-2097

반야정사 주지 대은 합장